

I. 개요

1. 연구개요

- 연구명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조사 및 급여체계 개선 연구
- 연구목적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연구기간 : 2019년 9월 10일 - 2019년 12월 30일
- 연구대상 : 경상남도 소재 사회서비스기관 및 종사자

2.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제정되었고, 이 법률 제3조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¹⁾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사회복지사 처우의 수준을 설정하였음.
- 「사회복지사법」 제정 이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 수준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의 열악한 상태는 지속 되어 옴.
- 「사회복지사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1)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음. 장기과제로 사회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임금(적정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수준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복지공무원보다 낮거나, 시군구청에서 일하지만 ‘통합사례관리사’처럼 공무원보다 턱없이 낮은 처우를 받는 공무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되는 현실임.

-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1) 사회복지직 공무원,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는 사업장의 직원, 3)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다소 미치지 못한 분야, 4) 지역아동센터/공동생활가정처럼 턱없이 낮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 등 매우 다층적임.
- 이처럼 임금체계가 천차만별인 것은 매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더라도 운영비에 인건비가 분리 표기 되어있지 않아, 각 사회복지시설기관 별 재정상황에 따라 인건비가 결정되기 때문임.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정체되고 소진 경험과 이직률은 점점 증가하여 사회복지현장의 부정적 효과는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게 될 것 임.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9.5%(보건복지부 내부자료)라고 조사되었지만, 사회복지현장, 특히 경상남도의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실태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보건복지부 2020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호봉 기본급 권고기준은 과장급의 경우 월 2,109천원, 부장급은 월 2,312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선임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 1,982천원, 사회복지사의 경우 월 1,883천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신입 사회복지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20대 평균 연봉과 비교했을 때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며, 근속 및 경력기간도 타직종에 비해 낮은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조직몰입 저하, 소진,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과 소요예산을 마

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경남 지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35,000명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약 1,200개소가 있음. 경남 지역의 사회복지사 기본급 인상율은 평균 3.3%이며, 전국 평균 비율 3.7%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수년 동안 매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 연구 과제

1) 연구의 의의

- 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영역별 일률적이지 못한 임금체계를 단일임금체계화하는 기초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이슈화되어 온 경상남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처우상황을 파악, 급여체계 및 중앙정부와 타 시도의 개선방안을 비교·분석하여 경상남도에 적합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처우개선을 이루기 위함임.

2) 주요 연구내용

- 경상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 파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요구 분석
- 경상남도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비교, 공무원 급여수준과의 비교를 통한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분석(2020)
-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개선 방안, 즉 급여체계 단일화와 수당체계 간소화 방안 제시(2021)

4. | 급여체계 대안 제시

-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 2회
- FGI 결과를 토대로 대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실시
- 임금체계 단일화 방안 제시(2020)
- 경남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및 연차별 소요예산 계획(2022)
- 기타 연구 내용
 - ① 급여인상 외에 급여 표준화, 수당, 근로여건, 고용안정성, 유연근무제 및 안식월(휴가)
 - ②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 시설 자체교육, 경상남도 및 경남사회복지사협회 주관 교육, 그 외 의무적 보수교육

5. | 연구 진행 일정

기간 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계획 수립				
자료분석				
FGI 및 AHP				
보고서 제출				

○ 기타 연구 내용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

연구 착수 2019. 9.	- 연구기간: 2019. 09 - 12 (총 3개월) - 연구책임자: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원식 교수
연구계획 수립 2019. 9	. - 연구의 배경 . - 연구의 목적 . - 연구의 범위
조사설계 및 실태조사 2019. 10-11	. - 초점집단인터뷰(FGI) (2회) . - 문헌조사 및 자료분석(2019. 10 - 11) . - FGI 자료분석
처우개선 기본계획 및 구상 2019. 11	. - 기본계획 수립 . - 향후 연구계획 수립
주요사항 최종검토 2019. 11	. - 연구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개발방향, 계획방향 재검토 .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대안에 관한 예비타당성 검토(AHP)
연구결과 및 최종보고서 제출 2019. 12	. -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작 . - 최종보고서 제출

<그림 1-1> 연구의 과정

6. | 수행내용 및 방법

1) 사회복지전문가 간담회(Focus Group Interview)

- 참여 대상 :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장, 사회복지 영역별 직능단체 대표 30명
- 조사방법 : 집단 간담회
- 조사시기 : 2019년 11월(2회)
- 조사내용 : 사회서비스 종사자 급여체계 전반

2) 예비 타당성 조사

- 분석적 계층과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는 계량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우 의사결정자의 판단과 경험을 조직화, 구조화, 체계화하여 평가요소의 가중치를 설정함으로써 수학적 모형을 통한 의사결정 기법.
 - ▶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기준 및 선택해야 할 대안들로 구성된 계층(hierarchy) 구조로 파악한 후에, 분석 과정을 통해 상대적 우선순위(relative priority)를 정함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모색 가능.
 - ▶ 의사결정자의 지식과 경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각 기준(criteria)에 관련된 대안들(alternatives)에 대한 선호도와 전반적인 목표에 대한 기여도 관점에서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의사결정자의 판단에 기초하여 수학적 모형 적용됨.
- AHP 접근 방법 채택 배경
 - ▶ 공공부문의 사업 타당성 평가 기법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됨
 - ▶ 특히 AHP는 정책적 타당성 조사에 활용됨으로써 대형 신규 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가능
 - ▶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AHP기법의 활용을 기본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음(한국개발연구원)
- AHP 설문은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상남도 사회복지분야 고위공무원,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단 및 사회복지시설장,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10여명을 대상을 배부함.